산업통상자원부 보도자료 다시 대한민국! 새로운 국민의 나라

보도시점 2023. 6. 15.(목) 14:00 < 6.16.(금) 조간 > 배포 2023. 6. 15.(목)

스마트팜(지능형 농장) 등 농산업 수출확대를 위한 부처 간 협업 본격 가동

- 코트라-농어촌공사 '스마트팜(지능형 농장)·농기자재 수출협력 업무협약(MOU)' 체결
- 스마트팜(지능형 농장) 중점지원 무역관 설치, 물류센터 활용, 전시회 우대 등 수출지원 협력 강화

스마트팜(지능형 농장), 농기계 등 유망 농산업 분야의 해외진출 지원 강화를 위해 부처 간 협업이 본격 추진된다. 산업통상자원부(장관 이창양)와 농림축산식품부(장관 정황근)는 합동으로 6월 15일 「농산업 수출기업 간담회」를 개최하여 농산업 수출기업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수출 확대방안을 논의하였다.

아울러, 이날 간담회에서는 코트라와 농어촌공사가 양 기관의 해외 수출지원 인프라와 농산업 전문성을 결합시켜 유망 농산업의 수출확대를 지원하기 위해 「스마트팜(지능형 농장)·농기자재 수출협력 업무협약(MOU)」도 체결하였다. 이번 업무협약을 계기로 ① 해외공동물류센터 활용·지원 강화, ② 스마트팜(지능형 농장) 중점지원 무역관 설치 및 특화 지사화 사업 추진, ③ 전시회·박람회·상담회 참여 우대 등 다양한 분야에서 농산업 수출확대를 위한 협업을 강화할 계획이다.

이 날 간담회에서는 유망 농산업 분야 기업들이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수출경험이 많지 않아 해외진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현지 지원거점 마련, 정책자금 공급 등 정부의 마중물 역할이 필요하다는 업계의 의견이 다수 제시되었다. 산업부와 농식품부는 금일 간담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바탕으로 범부처 수출상황점검회의 등을 통해 양 기관이 수출확대를 위해 상호 협력할 수 있는 방안을 계속해서 발전시켜나갈 예정이다.

간담회에 참석한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"스마트팜(지능형 농장) 등 농산업 분야는 단기적으로 수출확대 유발효과와 더불어 장기적으로 우리나라의 수출 상품군을 다양화하여 무역구조를 안정적으로 개편하는데 기여할 것"이라면서 "산업부를 비롯한 코트라, 무역보험공사 등 수출 유관기관들과 함께 농산업에 대한 수출지원을 적극 강화해 나갈 것"이라고 밝혔다.

담당 부서 <총괄>	산업통상자원부 무역정책과	책임자	과 장	정상용(044-203-4020)
		담당자	사무관	하원석(044-203-4023)
	농림축산식품부 농산업수출진흥과	책임자	과 장	박은영(044-201-2471)
		담당자	서기관	차희수(044-201-2472)

대한민국 정책브리핑
OPEN 출처표시
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